

세계 문화유산 맞나요?

원형 보존·주변 정비·관리체계 부실 규모에 비해 예산·인력 턱없이 부족

이상해 교수 "황금을 돌 보듯 한다" 일침

불국사 석굴암(사진 왼쪽), 해인사 팔만대장경(사진 오른쪽), 경주역사유적 지구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불교유적을 어떻게 관리하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3월 22~23일 이틀간 문화재청이 주최한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워크숍'에 참석한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 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해 교수는 지난해 이들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문화재 관리수준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는 순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황금'을 '돌' 보듯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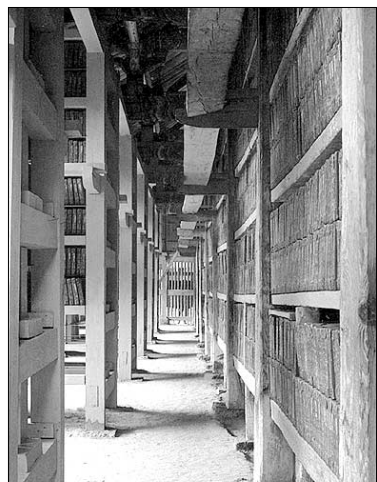
인사 장경각은 관리인 1명이 청소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데만 꼬박 1년이 걸릴 만큼 방대한 규모'라며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이들 문화재를 모니터링한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이들 3가지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면서 "문화유산을 활용하면 관광산업에 대한 안목자체를 높일 수 있어, 세계의 수준 높은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불국사를 관리하는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담당 인력자체가 부족해 세계문화유산을 따로 관리할 여두를 내기

어려워 문화유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지금까지 문화유산 근처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대운탕집' 류의 상업시설들이 관광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문화유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해 질 높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형보존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 문화상품화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불국사 석굴암의 예를 들며 불교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면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 인물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인사 장경각이 자연의 원리에 따른 건축방법으로 7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팔만대장



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석굴암도 일제강점기 당시 훼손된 원형을 파악해 이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석굴암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석굴암 원형 회복을 위한 연구모임' 등을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석굴암의 과학적인 구조와 새벽녘의 경이로운 경관은 세계인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해 교수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6>

고려장과 존엄사(尊嚴死)

생명은 반드시 죽어 그 자체가 소멸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사람이 죽어 없다면 사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죽어 남는 것은 한층의 재이거나 묘지 속의 썩어 버린 뼈 조각일 뿐이니,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부터 인지 사라져 가는 것과 같다.

죽음은 곧 욕망이 소진해 가는 것과 같다. 삶의 바닥에는 욕망이 자리 잡고 무리를 떠나 죽을 장소로 향한다. 단독부터 개체 유지와 종족보존이라는 욕망 하나로 이 사바세계 속에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펼쳐지는 데 기여하지만 결국 그 자신은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져간다.

한편, 욕망의 속성은 집착이기에 생

있는 사회적 식물인간을 양산해 가족과 사회적 부담 등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생명 연장일까? 생명과학이나 첨단 의학은 고통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동물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면 더 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보다는 조용히 받아들인다. 코끼리처럼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면 조용히 무리를 떠나 죽을 장소로 향한다. 단독 생활을 하던 동물은 조용한 장소에 숨어 죽음을 맞이한다. 이미 이들은 나이 가 들면서 몸이 쇠잔해져 욕망도 같이 잠들어 간다.

욕망의 만족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는 지금의 사회 풍조로 볼 때 과거 우

첨단 의학 고통·죽음의 공포 반영 욕망·집착 놓고 담담히 '몸'을 벗자

명제는 지금 살아있다는 현상에 집착하게 되어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도 그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비록 이러한 노력을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죽음 앞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집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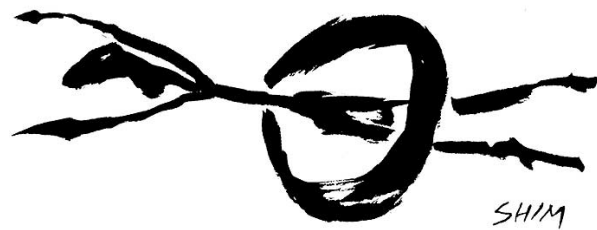
그렇기에 오용(濫用)될 가능성이 많은 안락사라는 달리 '존엄사(尊嚴死)'라는 죽음에 대한 본인의 적극적 결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아직 확실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안락사(安樂死)에 대한 논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혼란스러운 입장을 대변해 준다.

지금과 과거와 달리 생명연장술의 도움으로 죽어갈 사람도 소생시키고 있지만, 많은 경우 목숨만 연장하고

리의 고려장(高麗葬)이란 풍습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짓으로 보일지는 모르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서로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였을 수도 있을 것임이 틀림없다.

불교가 흥성했던 고려에서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던 고려장이 있었다면 '존엄사'는 이 시대의 고려장일 수 있다. 불자라면 스스로 고통을 여겨 있는 자기 내면에서의 욕망과 지극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집착을 되돌아보아 담담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가거나 오는 것이 아니기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듯 때가 되면 옛 조상의 몸을 받아 조용히 내가 선택해서 몸을 벗고 싶을 뿐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SHIM

가산불교대사림 6권 발간

'口' 항목 어휘 1천여쪽에... 총 15권 목표

가산불교연구원(원장 자관)이 15권을 목표로 펴내는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의 6번째 권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6권은 '만화(萬化)'에서 '무소지(無所依)'까지 한글 '口' 항목의 어휘 일부를 1천여 페이지에 걸쳐 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5권의 책과 마찬가지로 일반불교 어휘에 한국불교의 사상적 문화적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어휘도 포함, 한자어·범어·팔리어·티베트어 등 불교권 언어를 모두 기록했다. 15권 가운데에는 본권 13권 이외에 사전 간행 후 항목을 보완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보유권>과 <색인권> 2권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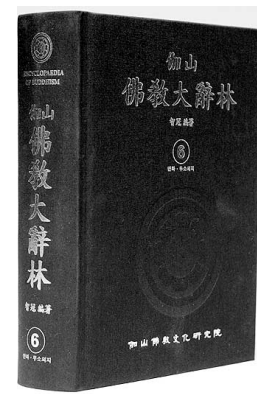
<가산불교대사림>은 1권이 나왔던 1999년부터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와 한국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도 사전편찬 과정을 본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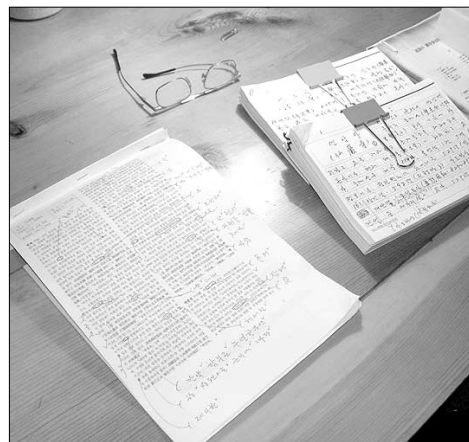
사전편찬의 가치와 어려움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자관 스님 책상 위엔 7명의 연구원들이 1주일동안 정리한 원고와 쌓이고, 그 때부터 스님은 빨간 펜을 들고 교정에 들어간다. '떨기발'이 되어버린 원고에서는 고개를 넘긴 스님의 꼼꼼함과 최고 학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띄어쓰기 하나까지 모두 교정돼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같은 과정을 몇 차례 거듭해 10번의 편수과정을 거쳐야 완성본이 된다.

사전에 실리는 15만여 개의 표제어는 자관 스님이 1982년부터 하나의 정리를 놓은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한다. 연구원 2층 벽면 하나를 모두 메운 금속 캐비닛에는 스님이 사전을 오려 붙이고, 직접 써내려간 흔적이 가득한 표제어 카드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또



최근에 발간된 <가산불교대사림> 6권(사진 왼쪽)과 자관 스님의 꼼꼼함이 엿보이는 원고와 놓여 있는 스님의 책상.



다른 벽면에는 이미 나온 사전은 물론이고 최근에 외국에서 발행된 사전이 한 가득이다. 마감교정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추가해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전 편수지침만도 A4 용지 24페이지나 돼, 이를 기준으로 <가산불교대사림>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부터 <조선왕조실록>까지 각 시대별 대표적인 역사서에 기록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원에서 직접 색인으로 만들어 사전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전이 모두 발간되면 한국학 연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연구원 기확실장 현원 스님은 "사전 15권이 모두 나온 후에는 <한국불교인물사전>, <한국불교역사사전>, <동아시아불교인물사전> 등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 사전을 단순 번역하지 않아 한국불교의 자주성을 지켰고, 저자의 해석을 배제해 몇 십년이 지난 후 후대가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오유진 기자

교통사고방지부적방석

천만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거리를 확보하고 하루에도 몇천건씩 일어나고 수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교통사고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강한 "氣"가 방출되는 신비스러운 "경명주사"로 염색한 [발명특허출원중] 특수실로 삼베에 저수하여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으며 "경명주사부적방석"은 나쁜 "氣"가 침범하지 못하게하여 운전자의 심신을 안정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저희 부적패션샵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부산PSB방송 [2003.11.11]아이디어 상품으로 방영되었으며

자매품으로 교통사고예방 "쿠션"과 신기만해도 재수있는 "양말" 세트도 판매합니다.

오늘도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 한개라도 주문하시면 성심껏 보내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751070-52-055271 예금주 : 장기홍
◇ 판매대금 : 방석 33,000원 쿠션 23,000원, 양말세트 23,000원
◇ 주 문 : 전 화 053)986-1355
휴대폰 011-537-1739

**이사업에 관심계시는분 상담요
치질 자연요법으로 치유
참조 홈페이지: www.bujukshop.com**

역술의 제왕(帝王)

역술을 알면 현생이 바뀐다!

옛 성현의 글에는 "군자는 재해(災害)를 예지(豫知) 함으로써 예방을 먼저 한다."고 하였다. 황제가 세 아들에게 전수하길 이 법으로 나라에 선정을 펴고, 수신을 보호하라! 만일 현명자가 없어 비법 전수를 하지 못하면 명산대산에 가서 물어라!

- 길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 흉시는 언제 끝나는가?
- 근심과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가?
- 언제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때는?
- 상대가 방문할 때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
- 기로에 서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원지, 산소달인가, 귀신달인가, 조상달인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흉재가 발생한 뒤에 감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 여리석은 중생아 깨어나라! 늦지 않은가?

태신유임의원에서 기초이론, 활용과정, 임상특으로 수강생 모집

- 포교당, 철학원, 운명연구회!
- 궁교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 수강생담은 예약!
- 각종 비법을 전수!

도서안내

- 아베 대신 대전과 황제내경, 육임대전
- 길흉정단비법
- 실천감정법
- 감정극비전
- 초학상해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501-7번지 1층
자료구입 계좌 : 대구은행 093-08-247393 (예금주 : 손외경)
전화 053)627-0170 / 휴대폰 016-580-6654

불자님을 모십니다

Size : 54 X 82 (Cm)

Size : 67 X 54 (Cm)

날로 변화가는 세파 속에서 바쁘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저희 호산에서는 인등 심지위에 모양을 그려 아름답게 핀 꽃에 불경을 실어 디지털인화지로 실크코팅 처리하여 작품화 하였으며 부처님은 정근기도를 실어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지체로워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희 호산에 작품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냐 판매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작품종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윤회의들불
벚꽃3송이, 나비, NS꽃, 왕관꽃, 왕관, 제비꽃, 진달래, 토끼풀, 봉선화, 매화

구입문의 및 상담 Tel 02)422-5335 / 02)422-0110
Fax 02)422-1144 / H-P 011-352-5097

물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온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이장 무료상당

상담전화 : 031-775-0114

이 사업에 관심계시는분 상담요
치질 자연요법으로 치유
참조 홈페이지: www.bujukshop.com